

2020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활용 가이드

1. 동의했나요?
2. 동의 받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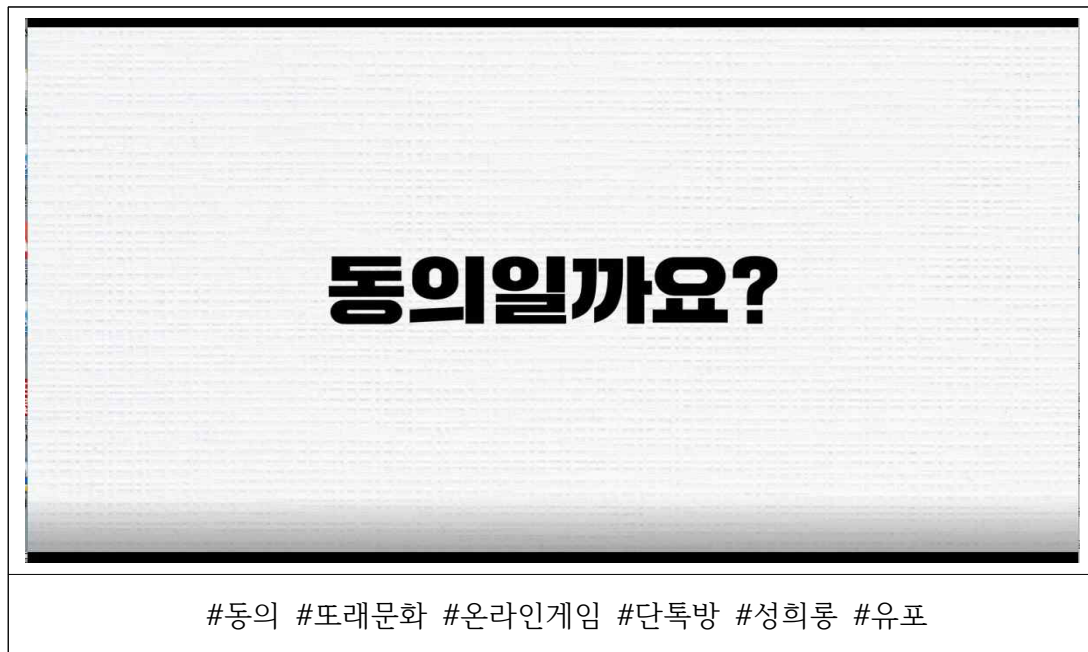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친화적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난 20년 아하!센터는 청소년의 평화로운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 졌지만
안타깝게도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폭력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발달하는
청소년의 문화만큼이나 이러한 폭력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아하!센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에 맞춘 초·중학생 대상 디
지탈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
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이 피해자 되지 않기를 넘어 가해자
되지 않기, 성폭력을 제지하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또래문화의 일상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
적인 실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강사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
신의 일상과 문화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로 기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변
화를 이끌고 있는 교육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만나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에티켓 관련 영상



* 소개

-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평적 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또한 수평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래문화를 점검하고 스스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본다.
- 대상: 청소년
- 길이: 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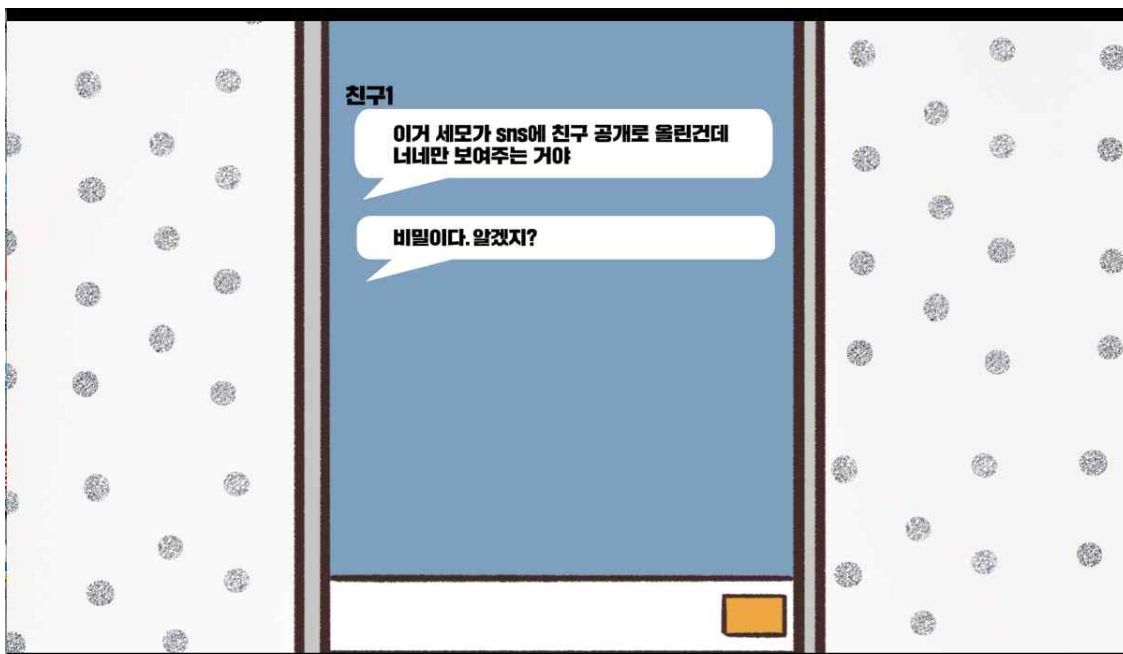
* 기획의도

- 온라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장난과 폭력적인 상황의 경계를 알고, 포래문화를 돌아보며 평화로운 성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영상을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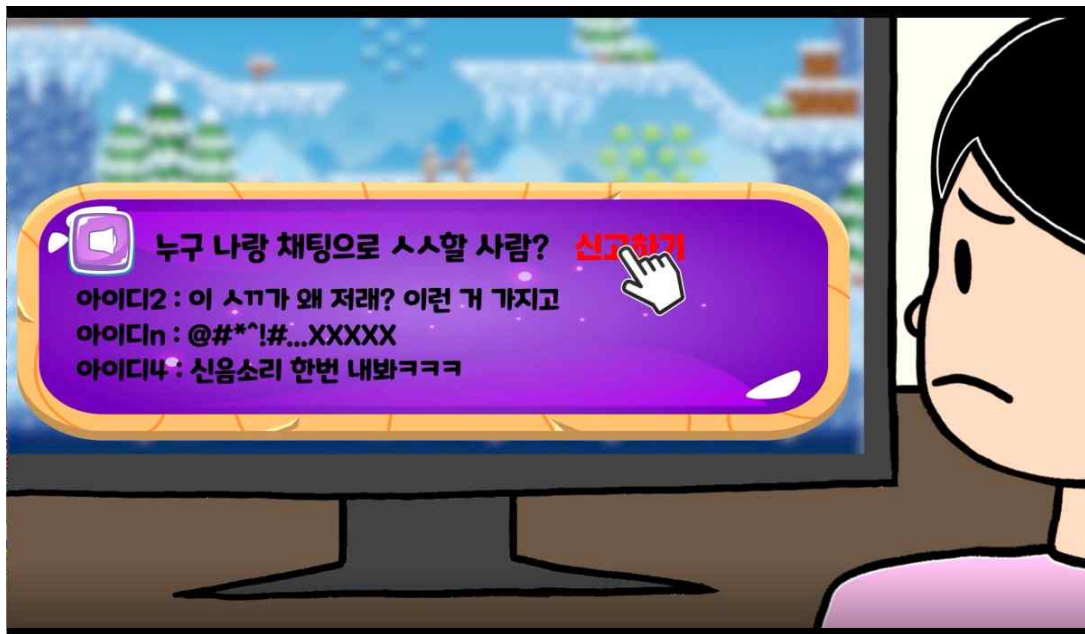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상황 1. 온라인 게임을 중 별척이나 장난이란 이유로 본인 혹은 타인의 사진, 연락처 등을 채팅창에 올릴 것을 다른 친구가 요구, 또래들 사이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 활용하기 1.
 -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또래집단 안에서의 권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할 때 만들어지는 집단문화, 강압적인 상황에서 소수의 의견, 감정이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상황 2. 단톡방에서 동의 없이 올려진 친구의 사진, 그 사진에 대한 외모 평가에 불편함을 느낌. 이를 제지하거나 불편하다 말했을 때 자신이 소외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고민하는 상황.
- 활용하기 2.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몸을 만지거나 보거나 하는 등의 행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장난이나 놀이 등 재미와 친밀감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농담이나 말, 누군가의 사진이나 연락처를 무단으로 올리는 것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나눈다.



- 상황 3. 온라인 게임 중 게임과 상관없는 성적인 말을 반복하는 유저에게 멈추라고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성과 관련한 말들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난처럼 남발하는 친구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
- 활용하기 3.
 - 온라인상에서 폭력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때로 가해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알려준다(영상물 소지, 저장만으로 처벌가능). 이때, 주변인으로서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본다. 모두가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여겨질 때 도움을 주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단체방을 탈퇴하거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소개한다. 나 한 사람의 표현이 불편해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내가 즐겁고 재미있을 것

이라는 의도로 제안한 일도, 누군가 불편함을 표현했다면 바로 멈추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사진 촬영, 업로드, 사용 에티켓 관련 영상



* 소개

- '사진 촬영 및 유포'라는 일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풀어 각 상황마다 구성원 간 동의와 합의, 조율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 대상: 청소년
- 길이: 3분 5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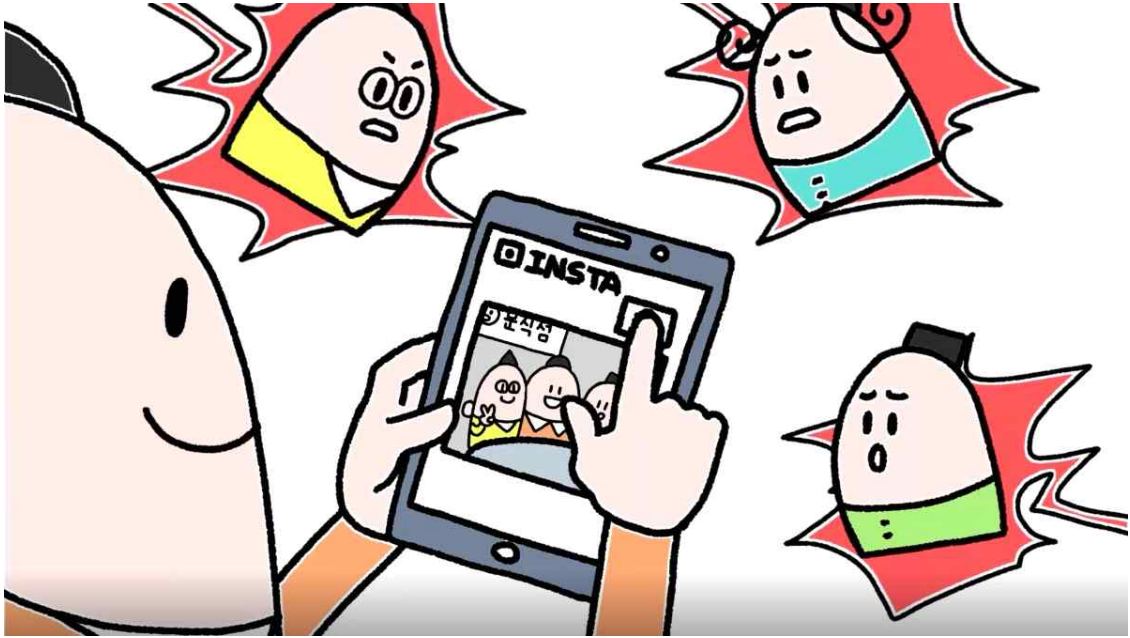
* 기획의도

- '사진 촬영 및 업로드, 사용'관련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진촬영, 업로드, 사용이 별개의 행위로 각 단계 마다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의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 주요내용



- 상황 1. 오랜만에 만난 모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구성원 중 누군가가 사진 촬영을 거절함. 구성원 중 누군가는 사진 촬영이 불편한 상황.
- 활용하기 1.
 -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알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을 경우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하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좋아.’, ‘같이찍자.’라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를 구할 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동의를 구하는 사람도, 거절을 하는 사람도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나누다..
 - 누군가 동의 없이 나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찍힌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을 알린다.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찍힌 사람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사진 삭제, 모자이크 등 찍힌 사람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지시킨다.



○ 상황 2.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림. 하지만 본인의 사진이 타인의 sns에 것을 알고 불편해 하는 친구가 있음. 나의 계정에 올린 사진을 친구가 불편해 하는 상황.

○ 활용하기 2.

- 개인 sns계정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찍은 사진을 공유할 때에는 사진촬영과는 별개로 ‘우리 00때 찍은 사진 내 sns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처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사진촬영에 동의한 것이 업로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하며, 업로드를 원할 경우에는 사진 속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거절의 의사를 밝히거나 ‘좋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한 번 더 확인 후 당사자가 원하는 조치(모자이크처리, 스티커 붙이기, 올리지 않기)는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또한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사진 속 구성원이 사진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상황 3.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 상업적 또는 홍보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함. 자신의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 모두가 불편한 상황.

○ 활용하기 3.

- 개인sns계정, 메신저를 통해 공유 받은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이 상업적 또는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sns계정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사용용도, 사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하며, 내가 올린 사진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상업적 또는 홍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올린 사람에게 사진 삭제, 글 내리기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에서 나온 일상의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 촬영물 소지, 유포 등을 포괄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 성문화를 주제로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